■ 도하 아시안게임 화제

한국교민 응원도 '선택과 집중'

메달밭 종목 중심 응원단 구성키로

카타르 교민들이 제15회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통적인 메달밭을 중심으로 응원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광일(52) 카타르한인회장은 29일 "교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축구 등 인기가 높은 구기종목과 양궁, 태권도처럼 금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큰 개인종목을 중심으로 응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인회의 이 같은 결정은 도하에 살고 있는 교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상주 교민 숫자는 건설과 IT 전문인력으로 온 주재원과 카타르항공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150여 명이다. 카타르에 주재하는 한국인을 모두 합해도 600여 명 안팎이다.

게다가 교민 대부분은 경기가 열리는 낮 시간대에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장을 찾아 응원할 수 있는 인원은 더욱 줄어든다.

한인회는 이에 따라 한국선수단이 출전하는 37개 전 종목을 응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축구와 야구 같은 단체종목과 금메달이 유력한 개인종목에 국한해 응원전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 해 1월 카타르 8개국 청소년축구대회에서 당시 교민들이 카타르항공 승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한 응원전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높였던 경험을 되살린 것이다.

한인회는 최근 교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응원단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지원종목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또 적은 인원으로도 큰 응원 효과를 거두기 위해 꽹과리와 장구, 징 등의 장비를 구입해 틈틈이 시간을 내 응원 연습하고 있다.

北선수단 입촌 지난 28일 북한 아시안 게임 선수단이 입촌식에 참가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말(馬)도 도핑테스트 받는다

승마 참가하는 모든 말 문제는 소변채취 속도

'두 발 달린' 선수 뿐 만 아니라 '네 발 달린' 말(馬)도 도핑테스트는 피해갈 수 없다. 관건은 사람에게서나 말에게서나 얼마나 빨리 소변을 채취해 내느냐이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도 승마 종목에 참가하는 말에 대한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29일 이번 대회 승마 종목에서 메달을 딴 말들은 물론이고 경기에 출전한 모든 말 가운데 5%를 무작위로 뽑아 금지약물 반응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도핑테스트 작업에 관여했던 호주 출신의 도하 승마클럽 약물통제담당관 데미언 노세다 씨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말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란다.

약물검사는 소변과 혈액을 채취해 이뤄진다. 도핑테스트를 받는 말은 한시도 감시를 피할 수 없다. 시료 바꿔치기의 기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다.

시료는 조작이 불가능한 팩에 담겨 홍콩에 있는 실험실로 옮겨진다. 결과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승마연맹(FEI)에 통보된다. 보통 일주일이 걸린다.

박원오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는 "보통 소변 검사만으로도 결과는 정확히 나온다. 소변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말의 목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약물 투여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원활한 시료채취를 위해 마방을 어두컴컴하게 하는 등 말에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부상 탈출 박지성 곧 팀복귀

오래 손꼽아 기다려온 소식이었다. 왼쪽 발목인대 부상으로 지난 9월 이후 2개월 넘게 재활훈련에 몰두해온 박지성이 마침내 팀 훈련에 복귀한다.

올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9일 홈페이지(www.manutd.com)에 'Reds duo to resume training(맨유 듀오가 훈련장에 돌아온다)' 제하의 기사를 통해 "박지성과 올레 군나르 솔샤르가 팀 훈련 복귀를 앞두고 있어 팀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다"며 "두 선수는 각각 발목과 햄스트링 부상을 극복하고 이번 주부터 팀 동료와 함께 훈련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10일 토튼햄전에서 왼발목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던 박지성은 2개월이 넘는 힘든 재활기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소화하게 돼 그라운드 복귀가 임박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정상훈련이 이어질 경우 박지성은 내달 23일 아스톤 빌라전부터 경기에 투입될 전망이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맨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성과 올레가 이번 주에 팀 훈련을 시작한다. 우리 팀에 정말 대단한 뉴스"라며 "12월에 경기 일정이 많은 데 두 선수의 복귀로 큰 힘을 얻게 됐다"고 기뻐했다.

퍼거슨 감독의 말 대로 맨유는 12월에만 7경기를 치러야 하는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다.

특히 12월 8일에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F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벤피카(포르투갈)전을 앞두고 있다.

현재 F조에서 나란히 3승2패를 거둔 셀틱(스코틀랜드)에 골득실에서 밀리는 2위를 달리고 있는 맨유는 벤피카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전에 진출할 수 있어 박지성과 솔샤르의 훈련 복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더구나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 첼시에 승점 3점 앞서는 위태로운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다 주전 공격수들의 체력저하가 눈에 띄고 있어 박지성과 솔샤르의 빠른 실전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성의 에이전트 JS리미티드는 "아직 공식적인 팀 훈련 복귀 날짜를 받지는 못했다"며 "박지성의 재활훈련을 지켜본 퍼거슨 감독이 팀훈련 복귀를 먼저 발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JS리미티드는 이어 "이달 초부터 부상 선수들끼리 가볍게 볼을 가지고 패스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며 "조만간 구단에서 훈련 계획이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韓·日낭자들 '그린 대결'

내달 2일 日서 국가대항전

박세리(29·CJ)와 신지애(18·하이마트) 등 한국의 간판급 여자 골퍼 13명과 일본의 정예 골퍼 13명이 한 판 대결을 벌인다.

양국 여자 골프계의 자존심이 걸린 이 대회는 제7회 교라쿠컵 한일여자골프 국가대항전으로,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센추리골프장(파72·6천405야드)에서 열린다.

특히 통산 전적 3승2패1무로 앞서고 있는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평균 연령이 일본(28.3살)보다 5살이나 어린 23.9살의 '영파워'로 무장했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 상금왕과 신인왕, 최저타수상 등 5관왕을 확정지은 팀의 '막내' 신지애와 '얼짱' 최나연(19·SK텔레콤), 박희영(19·이수건설)이 '젊은 피'의 주축이다.

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의 신인왕 이선화(20·CJ)와 와일드 카드로 출전하게 된 장타자 이지영(21·하이마트)이 힘을 보탠다.

관록의 박세리가 가세한 가운데 주장을 맡은 '일본 킬러' 김미현(29·KTF), 2세를 잉태하고 있는 한희원(28·휠라코리아)과 역대 승점이 가장 높은 '작은 거인' 장정(26·기업은행), KLPGA 3관왕 출신의 이미나(25·KTF)가 영파워를 뒤에서 받친다.

또 일본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전미정(24), 이지희(27), 신현주(26)가 합류, '지피기지면 백전백승'의 본보기를 보여 준다는 야심이다.

일본은 최고 스타인 '아이짱' 미야자토 아이와 일본의 '골프 여왕' 후도 유리가 빠졌지만 JLPGA 투어 상금 랭킹 1위인 오야마 시호(29) 등 상금 순위 상위자들이 대거 출동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랭킹 11위로 하락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의 골프 랭킹이 11위로 하락했다.

29일(한국시간) 발표된 주간 롤렉스 여자세계골프랭킹에 따르면 위성미는 지난주보다 한 계단 떨어진 11위에 랭크됐다.

위성미는 지난 3월 랭킹이 2위였으나 이후 계속 미끄럼을 타 처음으로 '톱10' 밖으로 밀려났다. 박세리(29·CJ)는 한 계단 상승해 10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 중 랭킹이 가장 높은 장정(26·기업은행)은 7위를 그대로 지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30일(목)

▲농구대잔치(11 : 50·SBS스포츠)

▲도하 아시아게임 야구〈한국-대만〉(14 : 50·KBC)

▲프로농구〈LG-삼성〉(18 : 50·Xports, SBS스포츠)